

## 칠지도

일곱 개의 가지가 달린 이 검은 천 년도 넘는 시간 동안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되었습니다. 1870년대까지만 해도 칠지도는 단순히 특이한 미늘창이라고 여겨졌습니다. 호기심이 왕성했던 고위 신관 간 마사모토(1824~1897)가 검에 낀 녹을 털어내자, 역사를 바꿀만한 금 상감으로 새겨진 비문이 나타났습니다. 검의 진짜 의의가 밝혀진 것입니다.

검신의 양면에 적힌 글은 부식으로 인해 일부 읽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. 학자들이 1세기가 넘도록 비문의 해독에 매달린 결과 몇 가지 해석이 나왔습니다. 글의 메시지에 따르면 이 검은 백제의 왕(기원전 18년~기원후 660년)이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.

8세기의 일본 연대기에는 진구 황후 재위 52년에 ‘칠지의 검’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. 이 ‘칠지의 검’이 이소노카미 신궁에 보관되어 있는 칠지도가 맞다면 칠지도는 4세기 후반의 것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. 하지만 상감된 문자의 정확한 의미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으며, 백제와 일본 간 관계의 차이를 시사한다는 해석도 있습니다.

또 다른 수수께끼는 이 검의 독특한 모양과 가장 좁은 부분은 폭이 수 밀리미터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. 이러한 이유로 칠지도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유물이자 일본의 국보입니다. 칠지도는 오래되어 손상되기 쉬우므로 공기 환경 관리가 이루어지는 보관고에서 나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.